

건강 칼럼

겨울방학 중 치아교정... 발치 없이 하고 싶다면 고려 사항은?

가 지런한 치아는 깔끔한 인상을 남기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하다. 교정 치아는 음식을 편하게 씹을 수 있어 영양가 높은 음식을 제대로 섭취할 수 있게 해주며 발음, 심미성 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겨울 방학을 앞두고 치과를 방문해 치아교정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평상시 화염으로 인해 미뤄왔던 치아교정을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을 때 시작하기 위해서다.

교정 장치 착용으로 인한 불편함에 적응하고 교정 초기에는 의료기관을 자주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방학이 치아교정의 적기로 꼽히는 이유다. 최근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의 경우도 대학 입학 전 치아교정을 통해 외모 변신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치아교정은 비뿔어졌거나 돌출입, 주걱턱, 부정교합 등으로 불규칙한 치아를 바로잡아 치아의 외관과 기능을 개선해주는 처방이다.

치아교정을 받으면 저작기능이 원활해져 소화불량, 위장장애를

예방할 수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해지는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 구강관리가 쉬워지고 외모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도 장점이다.

특히 성장기에는 뼈의 밀도가 낮아 성인보다 교정 속도가 빠르고 효과가 우수한 편이다. 치아가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통증이 적고 성인교정보다 발치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소아기 때부터 정기검진을 통해 부정교합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적절한 시기에 교정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치아교정은 성장 속도, 치아 교합 상태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으므로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교정시기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또한 정밀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치아 내부 공간, 치아 돌출 정도, 부정교합, 구강구조, 잇몸 뼈 등을 고려해 개인 맞춤형 계획을 세워야 한다.

만약 발치로 인해 치아교정이 망설여진다면 비발치 교정이 방법이 될 수 있다. 비발치 교정은 통증이 없고 저작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치아 이동 거리가 적어서 교정기간이 단축된다. 발치 교정 후 생길 수 있는 외모 변화나 공간 벌어진 현상도 없다.

치열 불규칙이 심하지 않아서 치아 중심선이 정상에 가깝거나 치아돌출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치아배열 공간이 충분하면 비발치 교정을 적용할 수 있다.

김혜진

강동구 연세진치과 원장



사설 투자 몰리는 새만금

최근 새만금이 기업들의 투자처로 주목을 받고 있다. 새만금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전북의 산업 지형을 바꿀 수 있을 때 때문이다. 신규 투자에 이어 추가 투자까지 더해져 올해 안에 10조 원 투자 유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LS그룹은 새만금에 대규모 투자를 공식화한 협약식을 가졌다. 배터리와 전기차 등 미래 첨단 전략 산업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기 위한 거점으로 새만금을 택한 것이다.

투자 규모는 모두 1조 8천억 원이다. 오는 2028년까지 새만금 신단 5공구에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전구체와 확산전극 생산 공장을 차례로 지을 계획이다. LS 그룹은 새만금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지 3개월여 만에 3천6백억 원대 추가 투자를 결정했다.

미래 수요 등에 대비해 확산전극 생산 시설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이차전지 산업의 핵

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새만금에서 이차전지 생태계 확장에 나선 것이다.

LS 그룹의 2조 2천억 원 투자에 힘입어 최근 1년 6개월 사이 새만금 투자 유치 규모는 8조 6천5백억 원으로 늘었다. 연말까지 추가 투자 협약들이 예정돼 있어 10조 원 투자 유치 달성도 기대할 수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큰 기업, 예를 들어 5천억 원 이상 투자하는 기업도 있고 적은 중소기업도 있고 그래서 계속 투자가 몰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전라북도도 전용 정화 시설을 확보하는 등 이차전지 관련 기업 추가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한편 기업 유치와 함께 이차전지 전용 공공폐수 처리장 건설 문제도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새만금이 예산 삭감 등 혼란스런 여건 속에서도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차질 없는 투자 이행을 기대한다.

연금개혁 쟁점

연금개혁 쟁점을 놓고 지리멸렬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24개 안과 정부가 제시한 '구조개혁 방향성'을 놓고 숫자 싸움이 불가피하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부터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17년간 묵인 현 9%의 보험료율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는 '더 내고 그대로 받'은 안이 초미의 관심사다.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잡음이 컸던 만큼 인상안도 담아 국민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할 것이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보험료율 인상 폭이다. 내 지갑에서 '얼마나 더 빠져나갈지'를 보여주는 수치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다.

보험료율은 '13%나 15%나'의 줄다리기가 될 것이다. 소득보장성 진영은 13%가 적정하다고 주장한다. 재정 안정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나, 인상 폭이

너무 크면 반발에 부딪히고 기금 규모가 커져 시장에 돈이 돌지 않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소득보장성은 현행 40%로는 연금액이 노후 최저 생활비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만큼 50%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재정안정과는 고통화로 수급자가 늘어나 재정 악화 요소가 큰 만큼 '유지'를 고수한다.

정부의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이는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정부가 제시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하는 방안은 세대 갈등을 부추길 수 있어 본격 논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연금 지급 방식을 '덜 내고 더 받는' 현행 확정급여형(DB)에서 '낸 만큼 돌려주는' 확정기여형(IC)으로 전환하는 방안 또한 쟁점을 찾기 어려운 잔광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산타 복장으로 교통 정리하는 필리핀 경찰관



5일(현지시간) 필리핀 파세이 거리에서 산타클로스 복장의 교통 경찰관 리미로 히노아스가 교통 정리를 하고 있다. 이 경찰관은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통근자와 보행자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교차로에서 춤도 춘다고 말했다.

지상공격 피해 대피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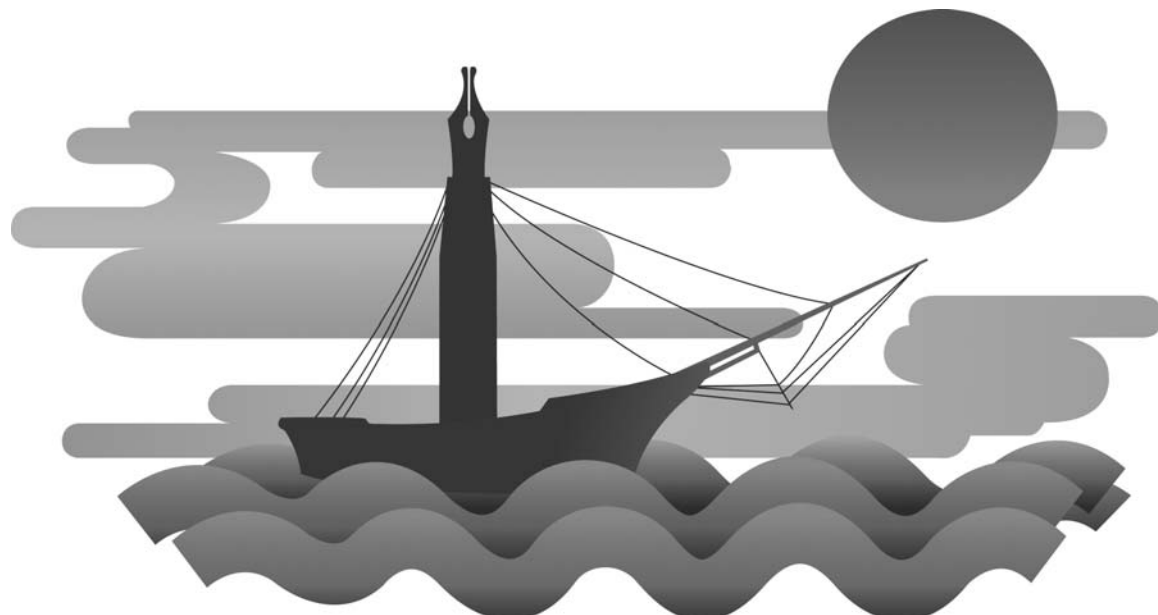
이스라엘군의 지상공격을 피해 대피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5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리파에 도착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 최대 도시 칸유니스에 도달, 최남단인 리파가 다음 목표로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